

2022.12.21. 쿠바와 베네수엘라 선교소식 4-4 분기. Noticias de Cuba & Venezuela

베네수엘라 이민자 공장

베네수엘라 젊은이들이 떠난다. 60%는 고학력, 전문직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선호. 갈수록 악화하는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탓에 지난 15 년간 160 만 명이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갔다.

카리브복음신학교 소식. Informe del Seminario Evangélico Del Caribe

2022.09.05. 카리브신학교 가을학기 시작하다. El día 5 de septiembre inició el 2do semestre del año 2022



Programa de estudio	Matricula inicial	Nuevos ingresos
Licenciatura Cumaná	22 participantes	3 hermanos
Maestría Cumaná	20 participantes	5 hermanos
APALIDER Cumaná	12 participantes	
APALIDER Montañita	17 participantes	
Licenciatura Cariaco	23 participantes	
Licenciatura El Tigre	19 participantes	
APALIDER El Tigre	8 participantes	

총 129 명이 가을학기에 등록하다. 아멘!



목회학석사 헬라이어 성경해석학 교회사 교실 화보. MDiv. Clase Hebreas, Hermenéutica, Historia de Iglesias



특수과정 8 명 몬타니타 지방분교 11 월 6 일 졸업하다. Apalider La Montañita finalizó el 26/11 con 8 alumnos



엘티그레 분교 특수과정 학사과정 수업모습(사진 우). 마리귀탈 분교 특수과정 83 명 훈련하다(사진 중)
엘티그레 학사과정 2 명

2022.12.21. 쿠바와 베네수엘라 선교소식 4-4 분기. Noticias de Cuba & Venezuela

Nota: El jueves 24 de noviembre finalizó el programa de APALIDER con 2 participantes en El Tigre. En el 5to. Semestre del programa de Licenciatura cursan 2 participantes en El Tigre.



선교사훈련과정(AmiCristo)에서 50 명 예수영접하다 (사진 왼편). 50 personas aceptaron a Cristo como su Señor y Salvador durante el Programa AmiCristo Marigüitar. 마리귀탈 분교에서 특수과정 훈련하다. (오른편사진).

Participación 19 estudiantes, en jornada de Evangelismo práctico, en el sector Los Capotes de Marigüitar.

카리브신학교 설치한 알파와 오메가 TV 체늘



해간 33 기 철맥회 동지들이 기증한 알파와 오메가 TV 체늘이 가동되고있지만 시청가가 많지않고 또 정전으로 운영이 잘 되지않는다. 야나다 교회 바우사와 호세렌헬학사담당부학장 호세카리아코 형제가 담당이지만 문제로다. 매월 TV 체늘 사용료도 문제지만 교수와 목사님들이 셀폰 윗앿을 손쉽게 사용하는것도 문제구나. 모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자동으로 방송된다.

쿠바한인후손들 사는 마을/도시



서부: 아바나 284명, 마탄사스 261명, 까르테나스 291명
 중부: 시에고데아빌라 25명, 까마구이 141명
 동부: 마나띠 51명, 홀긴 56명, 마르까네 73명

쿠바동부지역방문일지

쿠바전역에는 1200 여명의 후손들이 8 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있다. 1921 년 3 월 25 일 280 여명의 멕시코 이민자들 (1903 년대에 1000 여명이 인천항구를 떠나 멕시코 유탄탄 받도 에니깁 농장에 취업) 서부지역 아바나 카르테나스 마탄사스; 중부지역 시에고데아빌라

까마구이; 동부지역 마나티 마르카테 홀긴지역에 살고있으며 쿠바이민자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군인장교 공학도등 상류시민들지만 쿠바전체가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상태다. 현 대통령 미겔디아카넬이 기아 선포.

2022.12.21. 쿠바와 베네수엘라 선교소식 4-4 분기. Noticias de Cuba & Venezuela



2022.11.28. Sacramento-Toronto 오후 1 시 5 분 출발 11 시 도착 Doubletree by Hilton Airport Hotel 입실. 이번 여행에 딸 원아 동참. 장동철 목사님이 RBC 은행일 도와주고 안경애사모님이 브런치 접대하다. 감사하며 축복한다.

2022.12.29. 화요일 오후 3 시 40 분 Sunwing 전세항공으로 훌긴공항 도착하다.오후 8 시 40 분. Hotel Brisas Guardalavaca 입실완료. 오후 11 시 50 분. 긴 여정에 주님보호하심 감사하다.



2022.12.30. 수요일: 해변과 팔달라바카 동네를 둘러보다. 해변가 집과 아파트 방을 렌트하는구나. 하루 자는데 \$15-25 정도. 동네 한 복판에는 식당들이 있다. 보통 한 접시에 \$3-6 정도다. 맛도 있고 괜찮은 음식이다. 음료는 조심해야한다. 탄산수나 병물/생수가 안전하다. 주로 배낭족이 이른 시설 사용한다.

2022.12.01. 오전 7 시 15 분 카마구이-시에고데아빌라 출발계획이 좀 늦었다. 30 분 정도.



라투나시 입구 라톤나 파라돌(왼편사진)에서 쿠바커피한잔 후 카마구이 산드라 집(왼편에서 3 번째 사진) 방문하다. 뒷뜰을 모임장소로 끄린다. 제일침례교회에서도 추천을 거둔다. 한인후예지방회장 베르다김 내외 (4 번째 사진) 만나다. 한인후손들 중 집이 크거나 뒷 뜰이 있는자를 물색하도록 권유하다. 바레이로 식당 (5 번째 사진)에서 점심하다. 개인식당으로 5 명식사비 미화 \$35 정도다. 쿠바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다. 서둘러 시에고데아빌라로 달려가다. 쿠바전화가 있으니 미리 연락하니 너무나 마음이 편하다.오후 5 시경에 도착하다. 주소는 Calle 1/linea y A la Pinera, Ciego de Avila, Cuba.



갖고간 보따리를 풀고 윗 층에 설치할 텐트를 펴 보이고 7 명 침례자에게 침례증 주니 벌써 오후 7 시 반이다. 사모가 빨리 돌아가자고 재촉한다. 늦은 점심을 카마구이에서 먹었다며 기사 루이스가 그냥 출발하였다. 저녁은 금식이다. 호텔에서 돌아오니 12 월 2 일 새벽 2 시로구나. 아~ 빨사 성경이 준비되지않아 그냥 돌아오니 가슴이 아프다. 쿠바에서 성경 구하기가 쉽지않다. 내일 프로엔사 목사에게 간청하자. 기사 루이스에게 재차 독촉하였으니 . 쿠바에서는 쉬운 일이 없지만 안되는 일도 없다.

2022.12.21. 쿠바와 베네수엘라 선교소식 4-4 분기. Noticias de Cuba & Venezuela

2022.12.02. **금요일**. 우리는 호텔 투르티아 본 식당에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식당이 6-7 군데 더 있구나. 해변에서 잠시 쉬고 오늘은 특식으로 먹어 볼까?



라버스티나 (Lobster) 쇠고기 안심 (Beef Tenderlion)도 있다. 우리는 본관 식당에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알아야 면장하지. 역시 영어권 딸이 함께 오니 배울점이 많다.

2022.12.03. **토요일**



오전 8 시면 충분 할 줄 알았는데 마르카네 입구의 다리가 내려앉아 쿠바 캐스트로 도시 비란 뒷길로 둘러 가니 2 시간이상 지체되었다. 덕분에 딸을 캐스트로 본가를 방문하게되었다 (왼편사진). 루이덴교회에 도착하니 오후 1 시가 지나는구나. 오전 11 시에 예배보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러나 보따리를 꾸니 모두들 입이 썩 벌어지네. 신발 아이들 어른들 옷등 모두 신품이며 비타민, 보약, 진통제등등. 모든 참석자들이 2-3 개 이상을 받았다. 침례자들에게는 큰 글자 성경과 분유등이 산물로 주어지다.

2022.12.04. **일요일**. 오늘은 마나티 행각 예배처 구입을 결정하는날이다. 아침 일찍 과달라바카 호텔을 출발하여 오전 10 시에 구입 할 집에 도착하도록 예약하였다. 비가 내리고 길이 좋지않아 12 시경에 도착하였다. 주인 마님 마리솔과 담판하다. 원래 마나티 의사청년 레이날도파 얘기한 \$7100 을 제시했다. 에어컨은 필요없고 침대하나와 밥상만 두기로하고. 예배시간이 12 시였는데 오후 한시로 연기되었다.



모두들 시장기가 연연하다. 간단한 예배 후 2 시다. 침례자들에게는 큰 글자 성경과 분유가 주어지고 옷이나 신발 비타민 진통제 약등은 늦게 점심먹으면서 나누었다. 모두들 선물을 한 꾸루미식 받고

2022.12.21. 쿠바와 베네수엘라 선교소식 4-4 분기. Noticias de Cuba & Venezuela

희희낙낙 하는것을 보니 어렵게 찾고 온 보람이 있구나! 40 여명이 배불리 먹었다. \$127 불 정도다. 1 인당 \$3 정도다. 딸 아이에게 마나띠 입학 기념비 1921.03.25. 보여주기위하여 서둘렀다. 모든 매매서류를 사인 받고 모든 교인들이 사인하여 법적 구입자 3 명이 소유권을 주장하지못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서류가 사인되지안왔고 내 가방속에 잠 자고있었다. 결국 예배 후 그냥 출발하니 집 구입이 연기되는구나!



행각 임시예배처소 집(Casa Calle 48 #6 Manatí, Tunas, Cuba)를 구입하게되었다. 미국으로 돌아 온 후 요금 지불하였다. Esnerida/Esminda Amado Kim, Maricela Lourdes Núñez Pérez, Reynaldo Yance Santi 세 지도자들 이름으로 등록하며 한인후예들이 처음 상륙한 도시에 상징적인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축복한다.

2022.12.05. 월요일. 갑자기 기침이나고 목이 아프다. 모든 상비약을 한인후손들에게 주었으니 아무것도 없구나. 바닷가에서 쉬면서 기도하는수밖에. 오전 오후 모래위를 걸으면서 쉬니 한기는 없어졌으나 감기 끼가 있다. 코빗-19 는 아니겠지.



쿠바의 교통수단은 20 세기와 21 세기를 넘나든다. 추력이라도 탈 수 만있다면 다행이다. 길거리에는 쿠바지폐를 들고 흔드는사람이 많다. 돈 있으니 태워달라는 신호다. 정부소요 차량 렌트는 너무 비싸다. 자연스럽게 개인 렌트차량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차량은 1950-70 년대 차들이라 고장이나 타이어 빵구가 예사다. 이른 상황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하다. 일요일 마나티에서 돌아오는 중 타이어가 터져 한 시간 이상 지체되어 오후 8 시 후에야 호텔에 돌아왔다.

2022.12.06. 화요일 토론토로귀국이다. 입국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다. ArriveCAN 서류작성이 면제되었다. 지난 8 월 출국시 공항에서 인터넷 구입하여 입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VIP 프로그램으로 빨리 출국수속이 끝나면 좋으련만 경비 아끼느라 일반프로그램이라 풀지로 수속이 끝났다. 이민국 지나나고 세관지역을 지나는데 모든 가방을 다시 체크한다. 마약 검사며 모든 가방을 샅샅이 뒤진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민국 책임자에게 돌린다. 문제는 우리들이 첫날 12.01. 카마구이와 시에고데아빌라 갈때 교회버스를 사용하였다. 또 사모는 한인후손들 만나려간다며 점심을 요청하였다. 이른 일이 쿠바 보안청 시큐리티에 보고되고 우리는 감시되었다. 교회차량은 종교비자를 가진자들만 탈 수 있단다. 전에도 자주 탔지만 민박이라 아무 문제가 없었다. 리조트 프로그램이라 호텔 출입을 감시하는 자가 있다. 나의 모든 서류를 스캔한다. 할렐루야. 4 일 일요일 집 주인 마리솔이 늦게 연락하여 그냥 돌아왔구나. 모든 서류가 공터로 남아있으니... ㅎㅎ 할렐루야! 경고만 받고 출국시키지만 마음이 무겁다. 당문간 아바나 수도를 통해서 입국해야 할듯하다. 홀긴공항에서는 여러번 찍혀 출입국에 문제가 .

2022.12.07. 새벽 토론토 도착 Quality Inn Toronto Airport 에 오전 2:30 에 입실하다. 오전 4 시에 호텔버스가

2022.12.21. 쿠바와 베네수엘라 선교소식 4-4 분기. Noticias de Cuba & Venezuela

운영되어 UBER 로 도착하다. 딸은 오전 6 시 비행기로 미국으로 출국하다. 오전 9 시에 장동철 목사 안경에 사모가 호텔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9 일까지 투숙하도록 조치가 다 되었다. 브런치로 한인식당에서 우거지 국밥로 배를 채우니 즐린다. 우선 공항으로 가 출국을 7 일에서 9 일로 변경 시도하였다. 어쿠 델타항공에서는 당일만 변경 가능하단다. 9 일 출발시 \$850 을 요구한다. 밤 7 시 30 분 비행기로 토론토 떠나도록 급히 짐을 다시챙겨 호텔을 출발하다.

2022.12.09. 밤 늦게 새크라멘토 도착하여 집에 도착 쓰러지다. 갑작이 변경된 스케줄에 감기 기운이 짝 살아지네.

2022.12.12. 더디어 녹내장 수술후유증으로 나빠진 오른 쪽 눈 안경을 처방받다.

참고: 쿠바는 시큐리티 보안이 잘 된 나라로 밤중에 걸어도닐수있었다. 자본주의 물질주의의 팽배로 도둑과 절도가 심해지고있다. 이번 여행에서 카마구이 한인후손 한명이 밤거리에서 강도 만났다. 셀폰을 빼앗기고 쿠타당하였다. 빼기지 않을려고 저항하다가. ㅎㅎ

오랜친구 동역자: 구관이 명관이다



사진원편부터: 참으로 오래된 1987 년 동역자 문대연 목사님 내외를 교육부세미나에서 만나다. 반갑고 쾌짙하다. 나를 한침교회협의회 해외선교부에 선교사로 넣었다. 지원약속 잇고 35 년을 섬기도록. 할렐루야! 지원 받으면 선교일 잘 감당하였을까? 2012 년 3 월 강삼권 목사님이 카리브 신학교 강의 오셨다. 세계선교침례교 신인훈 목사 연결고리로. 2 번째다. 신학교 숙소에서 강도 만나 권총으로 이마에 피 흘리도록 타격받았지만 하나님 이 보호하셨다. 이훈 선교사님 쿠바 한인후예 시니어 선교 잘 조직하세요. 시니어로 경제적으로도 자유스러운 형제들을 화요일이나 금요일 부터 한 주간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며 캐나다 토론토나 벤구버 몬터리올 거쳐야합니다.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교회비전에 감동먹고 실천하도록 기회주시고 은혜 배푸소서! 이제 저희들은 나이가 많아 쫄대로 소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 모든 것 마끼고 우리들은 함께 가도록 노력하며 뒤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성권 목사님 천국환송예배 참석: 건강주시고 기회주시니 념 감사하다



이성권 목사님 천국환송예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 품에서 폭 쉬어라.” 총회 이행보 회장님 강승수 총무님 국내선교부 반기열 목사님들 참석: 천국환송예배 설교, 축도, 하관예배 설교하시니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강경숙 사모님 이브카 자매 이요셉형제 김마리아 자매님 너무 상심마세요. 큰 상 받으시는 이성권 목사님 천국에서 뵈요. 박준규 집사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교회천국환송예배에서 장지에서 공항까지. 20 여 목장 선교도움 헛되지 않소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박레이 목사님 수고 많았소. 저희들도 좀 쉬면서 남은 과제 함께 갑시다.

기도요청

1.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쿠마나 사역과 카리브신학교사역이 현지화되도록
2. 쿠바 입국 출국에 걸림돌 없어지고 8 개 지역 한인후예(손)들 모임이 독립교회로 성장하도록

참고: 미주에서 2 인기준 참가 경비

- 미국-토론토 항공료 \$500x2=\$1000
- 토론토-쿠바 리조트 호텔 항공료 숙박 포함 \$800x2=\$1600
- 현지차량비: \$800-\$1000
- 한인후손들 현금 점심 접대비: \$500-\$1000
- 토론토 체제비: 3 박 예상 \$450
- 선물비용: 비타민, 오메가 3, 관절완아제, 진통제, 옷가지 등 \$500
- 총경비 2 인 1 팀: >\$4000-\$5000